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 기후부,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협약
- 품질 검증부터 기술·생산 정보 공유까지 다각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 시설 개선 지원 등에 힘쓴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봉투에 재생원료 투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농수산물재활용공제조합과 함께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인테크, 동성 등 재생원료 사용 우수업체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약에 참여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정보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제품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로 삼아, 타 품목 등에 재생원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가며, 이를 통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서 전문.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주)동성(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 당사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지속가능한 종량제봉투 생산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재생원료의 수요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질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시설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며, 재생원료의 공급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라.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 정보 등을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재생원료 수요-공급의 연계 체계를 적극 구축한다.

마. 인테크·(주)동성은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우수업체로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생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공급되는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1. 협약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결정 절차를 거쳐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협약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6년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장관

회장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사장

인테크

(주)동성

대표

대표이사